

#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 The Opinions of Non-health Major Students on Registered Dental Hygienists to Medical-Personnel

김서영\*, 김형미\*\*, 정미애\*\*  
호남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Seo-Young Kim(sykim@honam.ac.kr)\*, Hyeong-Mi Kim(khm@kangwon.ac.kr)\*\*,  
Mi-Ae Jeong(teeth2080@kangwon.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70.2%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0%, 보건의료계열 직업을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7%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할수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2$ ), 치과정기방문 주기가 길수록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4$ ). 치과정기방문 여부, 스케일링 경험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의료인화 찬반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비보건계열 대학생 | 치과위생사 | 의료인 | 의료기사 | 의료인화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non-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265 non-health science major students without information about a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descriptive statistics, chi squared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out 4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edical personnel, while 17.7% think that they should not distinguis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As the respondents' oral health management ability improved, they approves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p=.022$ ). As the longer the period of dental regular visits, they answered that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Presence or absence of dental regular visits, scaling experience, oral health education did not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opinion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of the pros and con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policy of medical personnel for dental hygienists.

■ keyword : Non-health Science Major Students | Dental Hygienists | Medical Personnel |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

## I. 서론

한국에는 다양한 보건의료계열 직업이 존재하고, 이들은 다양한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1]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직종은 제2조에 따른 5종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81조에 따른 3종의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직종은 6종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이다. 이외에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는 단독법인 약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 중 대표적인 법률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대한간호협회[3]은 의료법이 의료인 직종의 상이한 차이점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4]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 관련 조항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고 하였다. 김[5]는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하여 간호인력을 합리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간호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3] 간호(사)법이 시행된다면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보다 분명해져서 전문 간호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높은 지지와 기대를 보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공통점이 없는 8개 의료기사 등의 직업을 법률 30개의 조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8종의 직업 중 치과위생사는 유일하게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과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는 직업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는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치과위생사처럼 진료실 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계열 직업은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업무와 관련된 통일성

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약사와 같이 ‘치과위생사법’ 등 단독법을 제정·시행하거나, 응급구조사와 같이 ‘치과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업무와 관련된 법률로 제정·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는 ‘dental act’나 ‘dental health act’ 형식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6]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dental therapist, dental assisstant, receptionist 등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규정하거나, ‘dental act’, ‘dental hygienists act’ 등 직종별 단독법 형태[7]로 시행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해 공론화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8],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직종별 단독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9], 2015년부터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제안하였다[10].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은 제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실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관련 선행연구도 신문기사 분석[11], 임상치과위생사들의 견해[1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식[13], 의료종사자들의 견해[14], 현안과제와 직무확충 방안[15]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일개

대학의 문화산업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과, 조경학과,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비보건계열 대학생들 26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하였다. 300명에게 배부하였고,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에 동의한 265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47명, 여성 112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학생 수는 문화산업경영학과 학생 74명,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33명,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83명, 식품영양학과 학생 56명, 기타학과 학생 13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10명, 2학년 81명, 3학년 41명, 4학년 27명, 무응답 6명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비보건계열 학과 교수 1인, 치위생학과 교수 1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근무경력 있는 치과위생사 1인 등 연구자 3인이 설문지를 구성한 후 각각도로 검토하였다. 8인의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내적타당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문항의 content validity index(CVI)가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이후 3인의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문항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다양한 직업 중 의료인이라고 생각되는 직업, 처음 들어보는 직업 각 1문항,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한 4문항, 치과위생사의 업무 1문항, 치과위생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문항, 구강건강관리행동 8개 문항, 일반적 특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인 5종, 의료기사 등 8종, 기타 수의사, 약사 등 10종 총 23개 직종 중 의료인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중복선택하게 하고, 동시에 23개 직종 중 처음 들어보는 직업도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함', '보건의료직종을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

지 않아야 함',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 '잘 모르겠음' 등 4개 중 택일하게 하였다. 의견을 선택한 후 각각 그 이유에 대해서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함'을 선택한 이유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15]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보건의료직종을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함'의 이유는 연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비보건계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8개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를 중복선택하게 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치과위생사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치과정기방문, 스케일링 경험, 구강보건교육 경험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지' 예/아니오로 응답한 후,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한다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스케일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응답한 후, '스케일링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받았는지' 직접 기입하게 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은 변안된 Oral Health Behavior index도구를 사용하였고[16], 이 닦기 빈도, 이 닦기 시기, 이 닦기 강도, 이 닦는 시간, 이 닦기 방법, 불소치약사용여부, 치간세정 정도, 혀 세정 정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 3. 자료분석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처음 들어보는 직업,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업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PASW Statics 18.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수준으로 하였다.

### III. 결 과

#### 1. 비보건계열 학생의 의료인에 대한 인지도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처음 들어보는 직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100%)이 의사는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 의료인 직종 중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조산사였다. 의료기사 직종 중에서 의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물리치료사였고, 치과위생사는 70.2%의 응답자가 의료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직업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의무기록사(48.7%)였고, 치과위생사를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이었다[표 1].

#### 2.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가장 많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식되는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로 나타났다[표 2].

#### 3.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의견 및 이유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40.0%, 반대 9.8%, 의료인, 의료기사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17.8%, 잘 모르겠음 32.1%, 무응답 0.4%로 나타났다[표 3].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임'으로 나타났고(31명, 27.4%), 의료인, 의료기사를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업무에 따른 법제도 필요'로 나타났고(49명, 75.4%),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이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실력 부족'으로 나타났고(12명, 25.0%).

#### 4.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 구강건강관리행동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할수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22), 치과정기방문 주기가 길수록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표 4]. 치과정기방문 여부, 스케일링 경험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는 의료인화 찬반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1. 비보건계열 학생의 의료인에 대한 인지도 (n=265)

직종명	의료인이라고 생각됨* n(%)	의료인이 아니라고 생각됨 n(%)	처음 들어보는 직업임* n(%)	들어본 적 있는 직업임 n(%)	무응답 n(%)
치과위생사 <sup>††</sup>	186(70.2)	79(29.8)	25(9.4)	240(90.6)	-
의사 <sup>†</sup>	265(100)	-	-	265(100)	-
치과의사 <sup>†</sup>	263(99.2)	2(.8)	-	265(100)	-
한 의사 <sup>†</sup>	244(92.1)	21(7.9)	1(4)	264(99.6)	-
조산사 <sup>†</sup>	128(48.3)	137(51.7)	129(48.7)	135(50.9)	1(4)
간호사 <sup>†</sup>	246(92.8)	19(7.2)	1(4)	264(99.6)	-
임상병리사 <sup>††</sup>	180(67.9)	85(32.1)	45(17.0)	220(83.0)	-
방사선사 <sup>††</sup>	179(67.5)	86(32.5)	21(7.9)	244(92.1)	-
물리치료사 <sup>††</sup>	227(85.7)	38(14.3)	2(8)	263(99.2)	-
작업치료사 <sup>††</sup>	189(71.3)	76(28.7)	22(8.3)	243(91.7)	-
치과기공사 <sup>††</sup>	121(45.7)	144(54.3)	78(29.4)	187(70.6)	-
수의사	241(90.9)	24(9.1)	3(1.1)	262(98.9)	-
약사	214(80.8)	51(19.2)	-	265(100)	-
한약사	185(69.8)	80(30.2)	4(1.5)	261(98.5)	-
의무기록사	79(29.8)	186(70.2)	129(48.7)	135(50.9)	1(4)
안경사	75(28.3)	190(71.7)	45(17.0)	220(83.0)	-
간호조무사	150(56.6)	115(43.4)	5(1.9)	260(98.1)	-
안마사	57(21.5)	208(78.5)	32(12.1)	233(87.9)	-
영양사	68(25.7)	197(74.3)	4(1.5)	261(98.5)	-
응급구조사	191(72.1)	74(27.9)	5(1.9)	260(98.1)	-
보건교육사	133(50.2)	132(49.8)	14(5.3)	251(94.7)	-
요양보호사	112(42.3)	153(57.7)	18(6.8)	247(93.2)	-
임상심리사	120(45.3)	145(54.7)	62(23.4)	203(76.6)	-

<sup>†</sup>실제 의료인, <sup>††</sup>실제 의료기사, \*중복응답 허용

표 2.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n=265)

법적 치과위생사 업무	치과위생사 업무임* n(%)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님 n(%)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147(55.5)	118(44.5)
불소도포	154(58.1)	111(41.9)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138(52.1)	127(47.9)
임시 충전	47(17.7)	218(82.3)
임시 부착물 장착	136(51.3)	129(48.7)
부착물 제거	169(63.8)	96(36.2)
치석 등 침착물 제거	213(80.4)	52(19.6)
치아 본뜨기	160(60.4)	105(39.6)

\*중복응답 허용

표 3.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 및 이유 (n=265)

의견	이유*	n(%)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함	찬성	106(40.0)
	① 치과위생사 업무의 본질이 의료행위에 부합함	31(27.4)
	② 높은 수준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임	19(16.8)
	③ 치위생판단 및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음	30(26.5)
	④ 의사-간호사와 유사한 치과 의사-치과위생사의 체계임	24(21.2)
	⑤ 치과 의료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9(8.0)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함	중립	47(17.7)
	① 의료인/의료기사로 구분하는 것보다 업무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해외 선진국은 의료인/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음	49(75.4) 14(21.5)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	반대	26(9.8)
	① 치과위생사 업무의 본질이 의료행위가 아님	9(25.0)
	② 높은 수준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실력이 부족함	12(33.3)
	③ 국민의 공감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④ 임금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이 예상됨	8(22.2) 6(16.7)
잘 모르겠음		85(32.1)
무응답		1(0.4)

\*중복응답 허용

표 4.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관리행동

요인	Exp (B)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찬성]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함			
절편		.900	.026
치과정기방문 주기	1.080	.057	.182
스케일링 주기	1.029	.082	.725
구강건강관리능력	.873	.059	<b>.022</b>
[중립]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함			
절편		1.054	.850
치과정기방문 주기	1.072	.065	.290
스케일링 주기	1.009	.100	.931
구강건강관리능력	.966	.068	.611
[반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함			
절편		1.348	.434
치과정기방문 주기	1.195	.062	<b>.004</b>
스케일링 주기	.728	.261	.224
구강건강관리능력	.851	.092	.078

표 5. 치과정기방문 여부, 스케일링 경험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찬반의견의 차이

	찬성 n(%)	중립 n(%)	반대 n(%)	잘 모름 n(%)	계 n(%)	$\chi^2$	유의 확률
정기방문	48 (41.4)	21 (18.1)	17 (14.6)	30 (25.9)	116 (100)	7.522	.057
정기방문하지 않음	58 (39.2)	26 (17.6)	9 (6.1)	55 (37.2)	148 (100)		

스케일링 받음	61 (38.6)	32 (20.3)	18 (11.4)	47 (29.7)	158 (100)	3.247	.355
스케일링 받아본 적 없음	45 (42.5)	15 (14.2)	8 (7.5)	38 (35.8)	106 (100)		
구강보건교육 받아봄	69 (41.3)	29 (17.4)	19 (11.4)	50 (29.9)	167 (100)	2.000	.572
구강보건교육 받아본 적 없음	37 (38.1)	18 (18.6)	7 (7.2)	35 (36.1)	97 (100)		

#### IV. 고찰 및 결론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로 구분되지만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진료실 내에서 치과 의사와 협업하여 '진료'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가진 직업이다. 현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8] 현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09년에 치과위생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5년부터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편입시키는 의료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계열에 대한 사전정보가 적은 비보건계열 대학생 26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의료인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물리치료사, 약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0.2%이었다. 이 중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이고,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는 각각 단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처음 들어보는 직업은 조산사, 의무기록사, 치과기사,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안마사, 치과위생사 순으로 나타나 인지도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의 순위와는 큰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17]의 연구에서 직업 인지도가 간호사, 치과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치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치과기사 순으로 나타나 과거와 비교해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꾸준히 각종 언론매체, 지하철 광고,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임상치과위생사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도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에서 임상치과위생사들은 89.5%가 찬성하였으며[12], 의료종사자들은 50.4%가 찬성하였다[14].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임상치과위생사, 의료종사자보다 낮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한다는 응답자가 17.7%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찬성이유는 치과위생사 업무는 의료행위이므로(업무 부합), 전문교육과정(교육과정 부합), 의료체계 유사, 전문인력이므로(업무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15]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성, 교육과정 부합성, 의료체계 유사성, 업무부합성 순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당위성이 있다고 하였고, 치과외사는 의료체계 유사성, 업무 부합성, 업무 전문성, 교육과정 부합성 순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당위성이 있다고 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 치과위생사, 치과외사 모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의료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치과위생사가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높은 수준의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실력이 부족함' 문항이었으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실제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병행하여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기에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설, 교수, 교육과정의 질을 검증하는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할수록 치과위생사 의

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구강건강에 관심이 있고 본인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하여 칫솔질, 치간세정, 혀 세척 등의 방법으로 노력할수록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치과에 정기방문을 하는 응답자 중에서 정기방문 주기가 길어질수록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본인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주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한다면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것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내실을 기하여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치과위생사의 역할 홍보, 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직종 체계 비교 등을 통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는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에 대한 대책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어려운 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계점을 의료인화 정책 외에 미국, 캐나다와 같이 치과외과와 관련된 법률(치과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dental assistant 등)을 제정한다거나 한국의 응급구조사, 약사와 같이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비보건계열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체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의견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유사한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추후 정책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1]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2019.4.13.

[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2019.4.13.

[3] 이한주, 강희선,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3호, pp.355-364, 2006.

[4]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제3권, 제3호, pp.113-120, 2005.

[5]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제32호, pp.215-261, 2015.

[6] <https://www.ada.org/en/publications/ada-news/2018-archive/november/action-for-dental-health-act-is-now-law>, 2019.4.21.

[7] <http://pdbns.ca/about/the-dental-act>, 2019.4.21.

[8]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95>, 2019.4.13.

[9]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01>, 2019.4.13.

[10]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787>, 2019.4.13.

[11] 김송이, 윤가림, 강동현, 김수진, 이시은, 장수빈, 홍성민, 황지훈, 김남희, “언어분석기법을 활용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 신문기사 분석: R프로그램 이용,”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7권, 제5호, pp.921-930, 2017.

[12] 류혜겸, “일부지역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8권, 제6호, pp.1067-1077, 2018.

[13] 김명희, 임연희, 이경애, 김수진, 김윤지,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와 의료인화에 대한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인식,”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pp.36-42, 2018.

[14] 형주희, 장윤정,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견해,”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7권, 제6호, pp.1013-1024, 2017.

[15] 이다솜, 한경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현안 과제와 직무확충 방안,”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18권, 제6호, pp.340-348, 2018.

[16]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치위생학*, 대한나래출판사, 2014.

[17] 조영식, 황혜림, 주승미, 최정윤, 황미라,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인지 관련 요인,”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11권, 제4호, pp.293-297, 2011.

저 자 소 개

김 서 영(Seo-Young Kim)

종신회원



- 1999년 8월 :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B.A
- 2000년 12월 : Texas A&M University-C, U.S.A, M.S.
- 2003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콘텐츠 제작,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김 형 미(Hyeong-Mi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치위생학 석사)
- 2017년 2월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치위생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사회치위생학 등

정 미 애(Mi-Ae Jeong)

종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구강보건학 등